

이슬람권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제안점

I. 서론

2019년 현재 한국 선교사 숫자는 21,378명이며¹, 2013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슬람권 한국 선교사 비율은 전체 한국 선교사의 26.9%이고², 2019년 기준으로는 5,75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³ 2019년에 조사된 한국 선교사 숫자는 1979년에 93명의 한국선교사를 통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40년간 약 230배가 넘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⁴ 이슬람권 선교사의 통계적 변화는 이전과 비교할 자료가 없지만 40년전에 이슬람권 선교사역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보다 훨씬 놀라운 수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 선교사 숫자의 증가율은 2007년 아프간 사태 이후로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다가 2010년대 들어서는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⁵ 이후 한국선교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기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며⁶, 한국선교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 선교사 멤버케어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특히 선교사의 신분으로 사역할 수 없는 창의적 접근지역인 이슬람권은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 가운데 사역해야 하는 특성상 열린 지역에 비해 특별한 선교사 멤버케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슬람권 선교와 관련된 조사에 의하면,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선교전략 및 정책, 교회개혁, 상황화, 이슬람의 문화 이해 등과 같이 이슬람 종교를 이해하고 선교 사역과 관련된 연구가 많으나,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멤버케어에 관한 연구는 빈약한 상태다. 그러므로 전도가 자유롭지 못한 이슬람 문화속에서 사역하는 이슬람권 사역자들을 위한 특화된 멤버케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선교사의 사분의 일이 넘는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이슬람권 선교사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슬람권 선교사들의 고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둘째,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어떻게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셋째, 이슬람권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멤버케어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선교사와 멤버케어 사역자들의 의견을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위의 조사를 통해 얻어진 현지의 목소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이 후방에서 후원하는 선교단체와 후원교회에 전달되어 이슬람권 선교사 멤버케어 정책에 반영되고, 효율적인 멤버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에 이슬람권에서 10년이상 사역한 선교사들과 선교사 파송단체의 멤버케어 사역자와 파송교회 선교위원회의 멤버케어 사역자를 대상으로 이슬람권 선교사 멤버케어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고, 효과적인 멤버케어의 방안에 대한 제안점들을 조사하여,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위한 멤버케어의 방향성을 찾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경

¹ Steve Sang-Cheol Moon, "Mission from Korea 2019: Support raising, 2019 April"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Vol. 43, No.2

² Steve Sang-Cheol Moon, "Mission from Korea 2013: Microtrends and finance, April 2913,"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Vol. 37, No.2(2013),

³ 각주 1의 자료에 기반하여 2019년의 전체 한국인 수에서 추정된 숫자임.

⁴ Steve Sang-Cheol Moon, "Mission from Korea 2018: Mission Educat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Vol. 42, No.2(2018). 171-177.

⁵ Ibid.171-177.

⁶ Ibid.

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아직 이슬람권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별로 없고, 연구 참여자들의 내적인 경험을 탐색하기 위함이다.⁷ 본 연구에서는 차마스의 구성주의적 연구방법론을 참고하여⁸, 문상철이 실제적으로 재구성한 3단계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일차코딩, 집중코딩을 했으며, 1,2차 코딩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3단계 이론화 코딩을 해서 결론 및 제안점을 도출하였다.⁹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1: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도움은 무엇인가?

연구질문2: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멤버케어는 무엇인가?

연구질문3: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효과적인 멤버케어 방안은 무엇인가?

II. 연구과정 및 절차

1. 참여자 선정

연구자는 연구주체에 맞는 참여자(인터뷰 대상자)를 그룹A와 그룹B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그룹A의 연구참여자는 이슬람권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이슬람권에서 사역한 선교사들의 어려움과 멤버케어에 대한 필요, 제안점을 육성을 통해 듣기 위함이다. 그룹B의 연구참여자는 다양한 선교지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선교단체와 파송교회의 멤버케어 사역자를 선정하였다. 이는 멤버케어를 제공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이슬람권 선교사에 대한 이해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로 멤버케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멤버케어 실무자 입장에서 멤버케어에 대한 제안점을 듣기 위함이다.

그룹A와 그룹B의 연구참여자들은 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였으며, 그룹A는 9명, 그룹B는 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슬람권 선교사라는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상 신분 노출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관계로 국가명이나 개인적인 특이사항은 기록하지 않았으며, 그룹A의 연구참여자 인적사항은 <표1>과 같고, 그룹B의 연구참여자 인적사항을 <표2>와 같다.

<표1> 그룹A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성별	연령대	결혼상태	선교지역	사역기간	소속단체
참여자A1	남	50대	기혼	북아프리카	18년	국내선교단체
참여자A2	남	50대	기혼	중동권	20년	국내선교단체
참여자A3	남	50대	기혼	중앙아시아	15년	국제선교단체
참여자A4	여	50대	기혼	중동권	18년	국내선교단체
참여자A5	남	60대	기혼	남아시아	28년	국내선교단체
참여자A6	여	60대	기혼	중동권	13년	국제선교단체
참여자A7	여	50대	미혼	중동권	18년	국제선교단체

⁷ Julidt Corbin, Andseim Strauss, 김미령 외7인 공역, 『근거이론』 (서울, 현문사, 2015).

⁸ Kathy Charmaz, 박현선, 이상균, 이채원 공역, 『근거이론의 구성』 (서울, 학지사, 2013).

⁹ 문상철, 『한국 선교운동의 지속가능성과 재활성화 연구』 (서울, 한국선교연구원, 2016).

참여자A8	여	50대	기혼	중앙아시아	20년	국내선교단체
참여자A9	남	50대	기혼	중앙아시아	21년	국내선교단체

<표2> 그룹B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성별	연령대	멤버케어 사역기간	소속단체 형식
참여자B1	여	60대	8년	국제선교단체
참여자B2	남	40대	3년	개교회 해외선교부
참여자B3	여	60대	20년	국내선교단체
참여자B4	여	50대	4년	국내선교단체
참여자B5	여	50대	11년	국내선교단체

2.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연구문제에 적합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사전에 발송하여 참여자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며, 온라인 상에서 일대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온라인으로 인터뷰가 실시되었지만,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비밀이 보장되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여 이루어졌다. 인터뷰 약속을 잡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한 후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로 부터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도 다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인터뷰 진행시 가능한 한 참여자가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그룹A는 1-2시간 정도, 그룹B는 1시간내외로 소요되었다. 온라인 상에서의 녹화와 녹음기를 통해 녹음을 한 후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자료화 하였다.

그룹A의 인터뷰 질문은 이슬람권에서 10년이상 사역하면서 선교사 입장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해결방식, 이슬람권 선교사를 위한 멤버케어 방안에 대한 제안 등을 질문하였으며 <표3>과 같다.

<표3> 그룹A의 인터뷰 질문

	질문 내용
질문1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했나요?
질문2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질문3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질문4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면서 경험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질문5	이슬람권 선교사 멤버케어를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룹B의 질문은 파송단체 본부 멤버케어 사역자와 파송교회 선교위원회에서 멤버케어를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생각하는 이슬람권 선교사들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멤버케어 상황, 제안점 등이며, <표4>와 같다.

<표4> 그룹B의 인터뷰 질문

	질문 내용
질문1	본부 멤버케어 사역자로서 이슬람권 선교사들의 고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2	이슬람권 선교사 멤버케어를 다른 지역 선교사와 어떻게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가?
질문3	이슬람권 선교사 멤버케어를 위한 제안점을 말씀해 주세요.

3. 자료의 분석방법

연구자는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자료를 코딩하였다. 코딩 과정은 Charmaz의 근거이론의 방식을 참고하여¹⁰, 문상철이 재구성한 3단계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¹¹ 1차코딩(initial coding), 집중코딩(focused coding), 이론적코딩(theoretical coding)의 단계를 거치며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1,2차 코딩을 토대로 3단계 이론화 코딩을 해서 결론 및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일차적으로 요약해서 일차코딩을 하여 주제어로 정리하였다. 일차코딩의 결과 전체 데이터는 총 52개의 코드로 요약되었다. 일차코딩 이후 언급 횟수가 2회이상 되거나 내용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코드를 파악하여 집중 코드는 35개로 정리하였다. 집중 코드들을 내용적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이슬람권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둘째는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 셋째는 어려움을 해결해 왔던 방식이며, 넷째는 도움받았던 사람이나 방법이며, 다섯째는 이슬람권의 현장에서 장기간 거주했던 선교사들의 필요와 멤버케어에 대한 제안점이다. 여섯째는 멤버케어 사역자들의 이슬람권 선교사에 대한 이해, 일곱째는 선교단체나 교회의 이슬람권 멤버케어 현황이며, 여덟째는 멤버케어 실무자들의 제안점이다. 위의 여덟가지 코드들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연구질문들 및 인터뷰 질문들로부터 유래한 것들이다. 일차 코딩과 집중코딩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이론화 코딩을 해서 이슬람권 선교사 멤버케어의 제안점들을 도출하였다.

III. 자료분석과 결과

1. 이슬람권 선교사의 멤버케어 필요와 대책

이슬람권에서 10년이상 사역한 선교사들인 그룹 A의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슬람권 선교사이 경험하는 어려움

이슬람권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어려움으로 비자문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어려움, 정체성 문제, 영적인 놀림, 열매 맺기 어려움, 본부나 교회로부터 이슬람권 상황을 이해받지 못함,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이 있었다.

(1) 비자문제

이슬람권 선교사는 선교사로 거주할 수 없거나,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없는 창의적 접근지역인 이슬람권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비자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손꼽았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외국인 관리법의 변화 등에 따라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며, 지속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받기 위해 잦은 비자여행을 하였다.

“첫 5년간은 아이들을 데리고 3개월에 한번씩 비자여행을 다녔어요. 임신해서도 가고, 몸조리 하면서도 가고, 5년간 14번의 비자여행을 했어요. 아이들 컸을 때도 서너번 갔고... 10년 후에 현지인 여행사 사장이 이름을 걸어 놓게 해 주어서 신분이 안정이 되었죠.” (참여자 A4)

¹⁰ Kathy Charmaz, 박현선, 이상균, 이채원 공역, 『근거이론의 구성』(서울, 학지사, 2013).

¹¹ 문상철, 『한국 선교운동의 지속가능성과 재활성화 연구』(서울, 한국선교연구원, 2016).

(2) 이슬람 문화에 대한 어려움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이슬람 문화를 알고 현지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어가서 살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화를 모르면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현지 문화를 충분히 알기 전에 현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경험도 있었다. 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한 선교사는 그들의 문화가 깊고 문화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던 행동을 해서 오해를 받은 적도 많았다고 한다. 이슬람 문화에서 여성 사역자는 남성 사역자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여성을 하대하는 문화,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항상 받아야 했고, 싱글 여성 선교사인 경우에는 ‘싱글 여성’이라는 개념이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많다.

“지역적 특성이나 문화를 모르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인지 문화적인 문제인지 구분을 못하기도 하죠. 문화나 지역이해가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사역하려고 해서 초기에 고생을 많이 했죠.” (참여자 A1)

“여기 문화는 모든 일정을 남자가 주도해요. 문화 자체가 싱글을 위한 것이 없다 보니, 독신 여성이 밖에 나와서 집을 얻어서 살게 되면 항상 남성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동료 사역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언어를 못 하는게 아니지만 여기 문화가 그러니까 남자가 말을 해주어야 해요.” (참여자 A7)

“이슬람 문화에 맞는 복장을 입어야 해요. 긴치마 같은... 남자들이 끈적거리게 쳐다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혼자 안 다니고 남편과 함께 다녔어요. 그러다가 친해지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냉장고 문도 마음대로 열어보고... 경계선이 없죠.” (참여자 A8)

(3) 정체성 문제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거주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회심자를 얻지 못할 때 마음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선교사로서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고, 특히 부인 선교사는 아내이며, 자녀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선교사 정체성을 지니기가 더욱 어렵다. 또한 자녀들이 밖에서 발설할까봐 자녀들에게도 다른 직업인으로 소개를 하는 편이고, 자녀들은 선교지와 한국을 오가면서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 한다.

“신분유지를 위한 사회적 정체성을 알고 있다가 한국에 오면 자녀들이 그 말을 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원장이라고 교회에서 말을 하죠. 그러면 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시킨 사람이 되고... 나도 거짓말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 초기에 많이 불편했었어요.” (참여자 A9)

(4) 영적인 놀림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이슬람권에는 영적인 놀림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 나라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서 한국에 나와서 보면 완전히 틀린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확 영적으로 놀리는 것이 있죠. 정서적 안정감을 흔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오면 확 풀어지죠.” (참여자 A3)

(5) 열매 맺기 어려움

열린 지역에서 교회개척을 할 수 있는 상황과 다르며, 회심자를 얻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이슬람권 선교사들에게 좌절감과 자책감을 가지게 하는 등의 어려움을 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열매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자유롭게 되었지만 열매 부분이 가장 어려운 항목이다. 한 사람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열매로 연결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어렵죠. 첫 열매를 얻기까지 초기 4년반 동안은 이것이 사역인가 하면서 자책을 많이 했어요.” (참여자 A2)

(6) 기타 어려움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선교단체나 교회로부터 이슬람권의 상황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부부관계의 어려움 등과 같이 개인적인 어려움이 현지 문화적응과 맞물려서 더 과중되기도 하였다.

2) 이슬람권 선교사가 염려하는 영역

이슬람권 선교사는 추방에 대한 두려움, 비자가 나오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 신분 노출에 대한 염려, 열매에 대한 부담감, 치안과 안전에 대한 긴장감, 자녀들의 학교 문제, 사역에 대한 확신없음에 대한 염려 등이 있었다.

(1) 추방에 대한 염려

교회의 파송을 받고 이슬람권으로 들어간 선교사들은 우선적으로 그 땅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추방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를 늘 지니고 있다. 또한 팀사역을 하다가 동료가 추방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추방된 이후에 사역을 백업해 줄 사람이 없을 때도 염려가 컸다.

“추방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부모도 긴장, 아이들도 긴장하고 살죠. 우리로 인해 다른 팀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도 걱정이 되고...” (참여자 A8)

(2) 비자가 나오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

이슬람권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릴 때마다 선교사들은 염려하게 된다. 안정적인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지속되는 염려가 있으며, 비자신청과 비자여행에 비용도 많이 들어서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도 한다.

“초창기에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순교해야 되는데, 추방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비자에 대한 부담이 컸어요. 비자 갱신시 정보부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불안한데 정보부에 갈 때마다 애들에게 충격을 줄여 주려고 전날 아이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었어요. 지나 보니까 마음의 준비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울고 그랬어요.” (참여자 A2)

(3) 신분 노출에 대한 염려

이슬람권에서 선교사 신분이 노출되면 추방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신분과 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 모두가 긴장하게 되고, 신분이 노출될까봐 염려하고 심리적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

(4) 열매에 대한 부담감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회심자를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크다. 교회에 선교보고를 할 때에도 부담감을 느끼고, 스스로도 압박감을 느낀다.

“열매 없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요. 기도편지를 늘 써야 하는데 부담이 크죠. 교회에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A3)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본국 교회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요. 교회개척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비교도 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셨어요.” (참여자 A9)

“가시적인 결과물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될까봐 염려가 되고 스스로 압박감을 느끼죠.” (참여자 A9)

(5) 치안과 안전에 대한 염려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치안과 안전에 대한 염려를 안고 살고 있었다. 생명의 위협, 고발당할 위험, 테러에 대한 두려움, 여성 선교사가 성적인 공격에 노출될 위험 등 안전에 대한 염려로 인해 늘 긴장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치안과 안전이 가장 문제가 되죠. 사회 자체는 개방된 사회이면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예요. 법적인 제재는 추방 같은 것이지만, 지역사회에서 반감을 받는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아이들의 신변안전까지 신경써야 해요. 아이들 등하교에 항상 동행하고, 학교에도 선생님들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학교 직원들 하고도 항상 연락해요.” (참여자 A4)

“안전이 문제죠. 모슬렘 사역하는 것이 발각되면 테러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있죠.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고발할 위험성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다가 나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해달라고 하는 걸 안해 주면… 돈이나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고발하는 경우가 있죠. 무슬림 사역자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차리려는 기독교인들이예요. 무슬림들에게 전도한다고 고발해요. 아내와 가족에게 위협이 될 때 가장 긴장이 돼요.” (참여자 A5)

“치안문제가 가장 걱정이 돼요. 테러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불안하고 폭발물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참여자 A6)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전무해요. 내가 걸어 다니는 모든 순간이 안전하지 않죠. 내가 부인이 아닌 싱글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매우 위험해져요. 나이에 상관없이 나를 타겟으로 삼아요. 성적인 부분이지요. 여성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안되는 문화예요. 대상인 여성이 10대이든 60대이든 상관이 없고, 타겟을 노리는 남자들도 10대이든 60대이든 상관이 없이 모두 해당돼요. 외출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강도가 엄청나요. 나갈 때마다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해요.” (참여자 A7)

(6) 자녀들의 학교 문제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사회적,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자녀들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큰 아이는 현지 학교를 다녔는데 둘째부터는 다닐 수가 없었어요.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학교 상황이 바뀌어서 자녀들이 현재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본주의로 가면서 민족주의로 가고, 외국인을 배척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죠.” (참여자 A4)

(7) 사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염려됨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이슬람권에서 다양한 사역을 시도하면서 이 사역이 맞는건지, 사역의 접근법에 대해 이슬람권 전문가가 점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슬람권에서 다양한 사역을 시도해 봤는데 이 사역이 맞는건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슬람권 전문가가 사역을 점검해 주었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사역의 기반을 비즈니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접근법을 취했는데 비즈니스 자체를 써포트해 줄 수가 없으니까 에너지의 80-90프로를 거기에 쓴 거 같아요. 본부에 얘기를 하면 크게 도움이 안되구요. 자가생존을 해야 했어요. 접근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낙심도 되었죠.” (참여자 A9)

3) 이슬람권 선교사들의 어려움 해결 방식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현지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감, 회심자를 얻는 경험, 동료 선교사들과의 모임을 통한 나눔, 현지인의 도움, 후원교회의 중보기도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왔다.

(1) 하나님께 나아감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였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지적으로... 현지에 가면 새벽기도도 없고, 혼자 해야 되는데 게을러지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참여자 A3)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더 노력했죠” (참여자 A9)

“적은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성경에서 찾아보았어요. 하나님이 작은 사역들을 인정해 주셨더라구요.” (참여자 A2)

(2) 회심자를 얻는 경험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열매없음에 대한 부담감이 큰데, 회심자를 얻을 때 큰 위로를 얻었다.

“열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죠. 단기팀이

오기도 하고, 내가 노력하기도 했지만...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험할 때 달라졌어요. 한 영혼을 만났을 때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인상을 사는 것 같았어요. 그 면을 경험했는지 아닌지가 이슬람 사역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A2)

(3) 동료 선교사들과의 모임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동료 선교사들과의 교제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면서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정들이 있어서 버텨요.” (참여자 A5)

“위기상황시 여러나라에서 온 선교사 모임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했어요. 나올 때도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올 수 있었죠.” (참여자 A6)

(4) 현지인과의 관계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그 땅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우기도 하고, 사소한 생활의 어려움들을 해결 받는다.

“현지인과 연합해서 살지 않으면 무인도에 서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현지인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아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신분 문제도 좋은 현지인을 만나서 남편의 직업을 마련되고, 남편이 직업이 생기면서 사회활동의 범위도 넓어졌어요.” (참여자 A4)

(5) 기타

이외에도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후원교회의 기도, 선배들의 조언, 본부에서 선교사의 건강 점검과 심리적 돌봄, 재교육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한국에서 가져온 세미나 CD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한국에 올 때마다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기도의 힘으로 살았죠. 교회에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었어요.” (참여자 A5)

4) 이슬람권 선교사가 도움받은 방식

10년이상 이슬람권에 거주한 선교사들은 현지인 친구의 도움이 가장 컸으며, 지역에서 열린 수련회, 친구 선교사와의 교제, 선배 선교사의 조언, 현지에서의 선교사들의 기도모임, 선교지를 방문해 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들, 안전이 보장된 장소를 제공해 준 곳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

(1) 현지인 친구의 도움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현지인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한다. 현지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들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생활도 수월해지고, 활동범위가 넓어지기도 하였다.

“현지인 친구의 도움이 크죠. 현지인들이 가르쳐 주어서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현지인들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어서 그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현지인 친구로 인해 초기 정착이 되었고, 현재 사역의 밑거름이 현지인이예요. 신앙적으로 개종은 안했지만 깊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지인가 진실한 관계 속에서 만나서 친구가 형성되고, 그들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도움은 본부보다 더 받죠.” (참여자 A1)

“현지인 친구들이죠. 예를 들어 집에 수리하러 사람이 온다면 현지인 친구가 아들을 보내주던지 도움을 줘요. 이런 일들은 너무 바빠서 동료 선교사는 못 도와줘요. 주로 현지인들에게 부탁해요 부탁하면 내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필요해요. 최선을 다해서 현지인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요. 이 곳에서는 현지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자기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 금방 알아듣고 도와줘요.” (참여자 A7)

(2) 선배 선교사의 조언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현지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훈련을 받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 안전의 위협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럴 때 먼저 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 선교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된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성추행을 당할 뻔한 경험이 있었어요. 너무 놀랐었는데 한 선배 선교사님이 와서 쉬라고 하면서 성추행은 흔한 일이라며 대처법을 몇 가지 가르쳐 주었어요. 큰 도움이 되었죠. 그 다음부터는 가르쳐 준대로 했어요.” (참여자 A7)

(3) 선교사 수련회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선교사들간의 교류가 쉽지 않아서 고립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으나, 선교사 수련회를 통해 영적인 충전도 받고, 다른 선교사들과의 교제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선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의 터치도 받고 관계적인 도움도 받죠. 수련회를 통해서 조언도 받고, 해결 제시도 받고, 들어도 주시고...” (참여자 A2)

(4) 현장의 동료선교사와의 정기적인 기도모임과 교제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현장에서 당면하는 여러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본부와 신속하게 연락을 취해서 매번 도움을 받기 어렵다. 하지만 정기적인 기도모임이나 교제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지해 주면서 함께 동지로서 사역하고 있다.

“매주 정기적인 기도모임이 있었어요. 팀 안에서 두 사람씩 짝지어서 서로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위기상황이 아닐 때에도 정기적으로 나눔이 있었어요. 1년에 한번씩 평가서를 써서 peer로 나누기도 하구요.” (참여자 A6)

“현지에서 단체를 불문하고 남성 선교사들의 차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토론토 하고 서로에게 지지가 되었어요.” (참여자 A9)

(5) 선교지를 방문해 주신 분들

고립되기 쉬운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목사님이나 교수님 등 외부인의 방문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사역의 방향성을 확인받기도 하였다.

“외부강사님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았어요. 상담교수님,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격려를 많이 받고 사역에 대한 방향성 등을 확인받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동료 선교사들에게 이해를 못 받고 점검을 받을 선배가 없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조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고, 성경적 근거도 얘기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어요.” (참여자 A4)

(6) 동료 선교사의 관심과 돌봄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같은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료 선교사들의 관심과 돌봄이 큰 힘이 되어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면서 사역하고 있다.

“나는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명절 때 싱글이 소외되고 외로운데 명절에 불려서 밥 한끼 먹는 것이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돼요. 그 분들이 시간을 떼어서 명절 전후로, 1년에 4번 정도 저를 초대해요. 가정에 초대받아 떠돌고 왔을 때 정서적으로 무엇인가 풀리는 듯해요. (중략) 어쩌다 한번 만났을 때 서로에게 격려해 주기만 해도 충분해요. 동료 가족이 그 일을 해 줄 수 있다면 싱글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참여자A7)

(7) 안전이 보장된 장소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긴장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전한 장소에서의 쉼이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너무 힘들었을 때 로템이라는 곳에 갔어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쉬기만 하면 돼요. 그곳은 안전이 보장된 곳이에요. 긴장되지 않는 장소에서 푹 쉬고 오니까 좋아졌어요.” (참여자 A8)

5) 이슬람권 선교사들의 멤버케어에 대한 제안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무엇보다도 현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의 멤버케어가 아니라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돌봄을 원하였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케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케어가 가능하도록, 현장과 본부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지기를 바랐다. 또한 인식년을 가지도록 하는 것, 현지를 방문해 줄 것, 선교사 수련회를 통한 만남의 장을 만들어 줄 것, 시니어 선교사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긴장을 풀고 쉴 수 있는 장소의 마련,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줄 것 등 다양한 멤버케어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1) 정기적인 돌봄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위기 상황이 많지만, 위기를 경험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멤버케어가 사후에 이루어 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루어 지기 위해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정기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말하기 힘들어요. 루틴한 의사소통 채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이든, 레포트이든,

정기적으로 선교사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통하는 채널이 루틴하게 있어야 해요. 국제 단체에 있을 때에는 사역자 중에 멘토링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관계를 지속해서 가져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대변해 주고, 내 편이 되어서 본부에 알려주죠. 매달 한번씩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통을 하기 때문에, 나와 계속 교체해 왔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죠.” (참여자 A5)

“마라토너 옆에서 함께 뛰여주는 사람과 같은 역할이 멤버케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A6)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활용하면서 정기적인 케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거점 도시에 멤버케어 센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A9)

(2) 현장에서의 케어

이슬람권 선교지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려운 지역이 대부분이므로 한국본부와 교회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현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현지와 한국본부가 긴밀하게 연계된 멤버케어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현지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해요. 동료 선교사들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죠.” (참여자 A6)

“싱글에게는 동료 가족이 매우 중요해요. 밀착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찌다 한번 만났을 때 서로에게 격려해 주기만 해도 충분해요. 동료 가족이 그 일을 해 줄 수 있다면 이 싱글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참여자 A7)

“행정적으로도 멤버케어가 필드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본부는 본부대로 있고, 연계해서 현지도 권역별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A9)

“꼭 필요한 시기에 현장에서 예방하고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케어하는 상담전문가 팀이 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A1)

“거점도시에 멤버케어 센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A9)

(3) 시스템의 필요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본부와 연계된 현지의 케어, 정기적인 돌봄, 통합적인 케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본부에서 여러 영역들을 고려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선교사가 혼자 있지 않고 단체의 구조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A6)

“이슬람 사역을 해본,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멤버케어 훈련을 받아서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본부가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하죠. 그러려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구요. 본부가 해줄 수 있는 멤버케어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A5)

“대학원 보내줄게, 운동하게 해줄게, 의료적 치료해 줄게. 다 해주면 좋은데 핵심이 빠졌어요. 군인이기 때문에 경험한 것을 멤버케어 해 주어야 해요. 전쟁에서 겪었던, 본인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다시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모두 다루어 주어야 해요. (중략) 상담 따로, 디브리핑 따로, 건강검진 따로..., 그리고 그 결과들은 서로 모르고.... 통합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매니저가 없는 것 같아요. 개별 매니저가 없어도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인력을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참여자 A4)

(4) 케어팀의 현지 방문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현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역과 사역지의 상황을 이해 받기를 원한다. 정기적이고, 팀으로 방문해서 점검해 줄 필요를 가지고 있다.

“멤버케어가 문제 발생시 뒷처리가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에도 방문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랍문화에서도 방문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사역하는 곳에 직접 와서 보시면 좋죠. 본부에서 멤버케어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에만 상담하지 말고, 방문해서 격려하고, 인정해 주고, 알아보고, 느끼고 해주면..., 문제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A2)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루틴한 의사소통 채널이 있어야 합니다. (참여자 A5)

“현장을 이해하는 시니어 상담 전문가가 팀으로 와서 현장에서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이해하는 선교사 상담 전문가가 팀으로 와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케어해 준다면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필요하죠. 한명 보다는 팀으로 와서 상황에 맞추어서 하는 케어가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현장에서 예방하고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A1)

“연합팀이 와서 여성 선교사, 남성 선교사를 따로 모임을 가져서 통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1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A8)

(5) 수련회의 다각화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영적으로 고갈되기도 하고, 가까운 곳에서 심리적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도 받고, 심리적 도움도 받으며, 이슬람권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끼리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기적으로 연례적인 수련회를 나라별로 국한시키지 말고, 사역권역별로 수련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하는 수련회에 가면 같은 영역끼리 잠깐 모여서 정보교환을 하는 정도이지 사역에 대해서 깊이 나눌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부족합니다. 비슷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지면 훨씬 공감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 A9)

(6) 안식년의 필요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영적, 심리적, 육체적으로 탈진하기 쉬우므로 안식년이 꼭 필요하다. 정기적인 안식년을 통해서 영적인 놀림과 긴장감으로부터 해방되고, 탈진에서 회복하며, 지속적인 사역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역하다보면 관계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 안식년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안식년이 필요할 때 사역 때문에 못하기도 해요. 한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안된다고 생각했었어요. 한 영혼을 만나기가 어려울 때 한 영혼이 나타나면 안식년을 가는 것이 어렵죠. 그래도 안식년이 왜 중요한가? 안식년이 훈련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떠날 수 있는 훈련이죠. 현지인에게 맡기고 떠날 수 있는 훈련이었어요. 안식년을 하는 사람은 더 쉽게 떠날 수 있어요. 자기 왕국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이죠.” (참여자 A2)

“항상 위기 상황이 있는 곳에서 조마조마한 삶에 대해서 힘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릴렉스 할 수 있는... 안식년이 필요하죠.” (참여자 A4)

(7) 상담과 디브리핑

이슬람권 사회 상황과 이슬람권 선교사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고, 사역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문제들도 있으므로 일반 상담과 달리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와 사역으로 인한 문제를 연계하여 전문화된 상담과 디브리핑이 필요하다.

“이슬람 사회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상담해 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A4)

“수련회나 순회방문에서의 상담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고 느끼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이나 가정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이니까... 짧은 방문이나 상담이지만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말할 수 있는 기회, 나를 보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참여자 A2)

“선교사들이 병이 나는 것은 두가지예요. 현지에서 받은 스트레스, 말을 못해서 병이 나는 것. 아무 이해 관계가 없으면서 상담사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 선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A4)

“제가 원하는 상담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힘든 일들에 대해서 사역자의 모습으로 접근하면 좋겠는데 과거의 가족문제, 자녀문제로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일반상담처럼 접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방에서 전쟁을 하고 온 군인들에게 전쟁에 관한 내용,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스트레스 등을 접근해 주어야 하는데 군인이 들어왔는데 부부관계, 자녀관계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담에서도 과거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역을 하면서 발생한 역기능, 부작용 등을 다루면서 디브리핑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A4)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 낼 수 있도록 들어주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디브리핑이 필요해요. 이야기를 풀어낼 자리를 마련해 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A6)

“사역을 하고 있지만 불안증세를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증세가 점점 심해진다고 봐요. 상담이 점점 더 필요해질 거라고 봐요. 상담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불안이 높아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A7)

(8) 기타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위의 내용 외에도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 긴장을 풀고 쉴 수 있는 안전한 장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역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재교육, 스스로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는 방식 찾기 등이 필요하다.

“개별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 입장에서는 회원들이 많아서 한 사람씩 신경 쓰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정서상 아주 친하거나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오픈하기가 힘들죠. 본부에서 접근할 때에도 당신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충분히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A3)

“안식년을 갈 때도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밀어주면 좋겠어요 (재교육).” (참여자 A3)

“싱글은 어디에도 의존할 수가 없고, 이슬람권에서는 집안에 있는 시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취미생활이 필요해요. 취미생활을 하도록 마인트셋이 필요해요. 자기만의 취미를 찾도록 도와주어야 하구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이려고 있는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권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영화도 보러 가고 하는데 여기서는 싱글이 혼자 다닐 수가 없으니까... 돈이 드는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받아들이는데 한국분들은 못 받아드리더라고요. 오랜 기간 사역했는데 싱글 사역자들이 취미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셀프 케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A7)

“하드웨어도 필요해요.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거죠.” (참여자 A8)

2. 교회와 선교단체의 이슬람권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제안점

파송단체 본부 멤버케어 사역자와 파송교회 선교위원회에서 멤버케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슬람권 선교사들의 멤버케어 상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점 등에 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1) 멤버케어 사역자가 생각하는 이슬람권 선교사의 고충

교회와 선교단체의 멤버케어 사역자들은 이슬람권 선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으로 선교사 자신, 아내 선교사, 선교사 자녀들의 정체성의 문제를 들었다.

“초기에 알고 들어가고, 비즈니스 등을 통해서 들어간다. 비즈니스로 살다보면 결국은 비즈니스로 살게 된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 내가 무슨 선교사인가? 이름만 선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 혼란스럽다. 기독교인으로 여기 와서 사업하는 사람 아닌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몸도 마음도 병이 들기 시작한다. 아이들도 부모들이 선교사로 왔는데 선교를 하지 않는다. 아이들도 부모를 지켜보면서 혼란스러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도 힘들다. 시간이 갈수록 후원하

는 교회들도 지친다.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도 교회안에서 내놓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면서 후원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열매가 많은 곳에 후원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 래야 교회도 후원하면서 신이 나고 그런다. 선교사로 가서 하니까 비즈니스도 번창하기 어렵고 ...” (참여자 B1)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선교사 자신도 열매 없음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압박감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테러에 대한 위협, 여성 선교사들의 활동의 제약,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격리되어 있음, 지속된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열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선교사들이 심리적 어려움과 신체적 질병 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2) 이슬람권 선교사 멤버케어 상황

교회와 선교단체에서는 이슬람권 선교사들에게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과 특별히 다르게 멤버 케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대신에 개인별로 다른 맞춤형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슬람권 선교사들의 위험한 상황, 긴장감,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열린 지역에 비해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귀국하였을 때 집중적으로 케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공감을 많이 해주려고 한다. 한국교회는 교회수나 교인 수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 교회개척을 활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기대하는 만큼의 열매를 제시하기 어렵고, 오랜 지역 사역해도 회심자를 얻기 어려운 이슬람권 사역지도 많기 때문에 그들의 외로움, 고충, 힘든 오랜 싸움 등을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한국 교회의 정서나 분위기가 눈에 보이는 열매를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등 선교사 같은 그런 면이 있죠.” (참여자 B3)

“권역별 수련회가 있는데 중동권은 할 수가 없어서 한국이나 동유럽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죠. 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참여자 B5)

“저희는 대표님이 선교사 전체에게 보이스트록을 하기도 해요. 카톡으로 주로 소통하고 있어요. 상황을 묻고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현재는 어떤지 상황을 물어보고 서로 안부를 물어보죠.” (참여자B3)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언어를 조심할 뿐만 아니라 대륙별, 권역별 소통 시스템을 갖추고 유사시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놓았다. 또한, 외롭게 사역하는 이슬람권 선교사들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모임이 자유롭지 못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안전한 지역이나 한국으로 오도록 지원하여 정기적인 수련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였다. 선교단체에서는 교회로부터 선교사 후원을 위한 추천을 요청해 올 때나, 선교사들을 위한 혜택이 제공될 때에 가장 먼저 챙기고 마음을 쓰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기적인 온라인 방문 등을 통해 인사를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이전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3) 멤버케어 사역자가 제시하는 이슬람권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제안

멤버케어 담당자들은 이슬람권 선교사 멤버케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선교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는 어려우며, 이슬람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멤버케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이슬람권에서는 열매를 맺는데 오래 걸린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선교단체들이 교회가 이슬람권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회를 교육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멤버케어가 선교단체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세미나 등을 통해서 교회가 이슬람권 선교를 이해하고 이슬람권 선교사를 도울 수 있도록 교회 입장에서의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슬람권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개인적인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케어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에 비해서 규칙적인 휴가나 4년마다 안식년도 중요하며, 건강검진이나 상담, 디브리핑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한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서두르는 면이 많습니다. 교회가 이슬람권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교단체들은 교회가 그것도 모르냐고 하는 뉘앙스로 말하는 듯합니다. 교회는 정말 몰라요.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기다려 주면 좋겠습니다.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단체가 매뉴얼과 교육을 통해서 교회에서 선교의 핵심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B2)

“건강 검진을 자주 한다든가, 휴가를 규칙적으로 잘 보낸다거나... 규정에 있어도 사역에 몰두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안식년도 4년마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열린 지역 사역자보다 건강검진을 자주하고, 상담이나 도움을 더 적극적으로 받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참여자 B3)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자주 연락을 해서 점검을 하는게 필요한데 자주 못하고 있어요. 멤버수가 많아서... 정기적인 소통을 통한 점검, 권장, 필요하면 행정적인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관리를 좀 더 잘하고 사역 집중을 조금 낮추고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팔로우 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한국에 오면 디브리핑을 반드시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참여자 B3)

이슬람권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선교사들은 고립되어 있어서 재교육이 절실하며, 현지에서의 정기적인 모임을 여성 선교사, 남성 선교사, 싱글 선교사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슬람권에서 거주하면서 상처를 입고 있는 MK들을 위해서 정서적 케어팀을 정기적으로 보내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본부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대면과 비대면으로 정기적인 안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최근 온라인 만남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성경공부 모임이나 부모 교육 모임들을 만들어서 참여하도록 독려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제까지는 나라별, 권역별 등 지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수련회 등을 실시했었는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종교적 상황을 고려한 멤버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역별로 모여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주제별로 패러다임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키고, 시야를 넓히고, 간헐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B4)

“MK측면에서 이중생활에서 오는 상처, 여자애들은 성적 학대 등의 상처 등이 있다. 그들을 위한 정서적 케어팀을 정기적으로 보내면 좋겠다. 큰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참여자B5)

“코로나 이후에는 줌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포가 형성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줌 미팅을 통해서 필요한 강의나 선교사들의 영적 공급을 신경써서 자주하면 좋겠어요. 그 분들을 기억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도록 하면, 소외된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혼자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 같아요.” (참여자 B4)

IV. 결론

1. 연구 발견

이슬람권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선교사들과 선교단체 본부와 파송교회의 선교사 멤버케어 사역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질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 다음과 같이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열린 지역에 비해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탈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적인 놀림, 신분이 노출되어 추방당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한 염려, 치안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의 긴장감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겪음으로써 영적, 심리적, 육체적인 탈진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사역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탈진 증상도 심해진다.

둘째,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현지에서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현지인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며, 현지의 동료 선교사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장기간 버티어 내기가 어렵다.

셋째,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위기가 발생하거나, 위험한 일을 당한 이후에 치료해 주기 보다는 예방차원에서의 정기적인 돌봄을 원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정기적인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안부를 묻는 것으로도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가 자신을 체크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안정감이 생긴다.

넷째, 선교단체의 멤버케어 사역자들은 이슬람권 선교사들의 고충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선교사 입장에서는 본부가 이슬람권 선교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소통이 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현장과 본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심리적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자신들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공감하고 지지받고 싶어하며, 긴장감을 내려 놓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장소에서의 휴식을 원하고 있다.

여섯째, 이슬람권 선교사들에게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를 돌보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문상철 외의 연구자들은 켈리 오도넬이 제시한 선교사 멤버케어의 모델인¹² 주님의 케어, 자기케어, 상호케어, 파송자케어, 전문가케어, 네트웍케어 중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전문가케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자기케어에 취약하다고 언급하였다.¹³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이슬람권 선교사에게 있어서도 자기케어가 필요하면서도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선교단체는 교회가 이슬람권 선교사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매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여덟째, 이슬람권 선교사들과 선교단체 본부는 이슬람권 선교사들을 위해 특화된 멤버케어 매뉴얼을 갖추고 통합적 케어 시스템을 갖추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홉째, 선교단체들은 이슬람권 선교사들을 위한 멤버케어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았지만, 교

¹² 켈리 오도넬 엮음. 최형근외 공역, 『선교사 멤버케어』(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49. Kelly O' Donnell, ed., Doing Member Care Well.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02)

¹³ 문상철, 박찬의, 신경섭, 유희주, 조난숙, 『한국 선교사 멤버케어 개선 방안』 (서울: 한국선교연구원, 2015), 131.

회나 기관으로부터 후원요청이 있을 때에 이슬람권 선교사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고 있었다.

2. 제안점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결과를 통해 이슬람권 선교사 멤버케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선교단체에서는 이슬람권 선교사들을 위한 예방 차원의 정기적 돌봄과 소통을 위한 특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파송 전에 이슬람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 타문화권에서의 대인관계 형성과 관련된 훈련 등 사역에 대한 사전 준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이슬람권 선교사들이 귀국하였을 때 탈진 회복을 위한 방안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적, 심리적, 육체적 회복을 위해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의 협업이 중요하다.

넷째, 교회가 이슬람권 선교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치를 내리려고 할 때 선교단체는 이슬람권 선교사의 사역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교회를 대상으로 한 선교교육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슬람권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는 안전한 장을 마련해 주거나, 이슬람권 사역자들을 위한 수련회(사역권역별 수련회) 등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슬람권 문화에서 사역한 선교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집단 디브리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¹⁴

여섯째, 이슬람권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현지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자기 돌봄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해 주고,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일곱째, 이슬람권 선교사들이 긴장을 풀고 회복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한 단체나 기관이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교회와 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3.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선교사 멤버케어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은 있지만, 이슬람권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자료가 빈약한 가운데 실시된 일차 자료에 근거한 경험적 연구라는 의의를 갖는다. 이슬람권에서 장기간 사역한 선교사들과 본부에서 가장 밀접하게 그들과 소통하며 지원하고 있는 본부 양쪽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결론과 제안점을 찾아낸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한국 선교사 멤버케어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한 문상철, 박찬의, 신경섭, 유희주, 조난숙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선교사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는 선교지 특성을 고려하고, 선교사의 삶의 여건이나 사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종교권, 문화권별로 적합하게 상황화된 방식의 멤버케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⁵ 본 연구는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

¹⁴ 유희주, “영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선교사 집단 심리 디브리핑 프로그램 개발: 기독교적 이야기치료 관점에서” (박사학위논문,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018, 16.

¹⁵ 문상철, 박찬의, 신경섭, 유희주, 조난숙, 『한국 선교사 멤버케어 개선 방안』.(서울: 한국선교연구원, 2015)

함으로써 이슬람 종교권과 문화권에 있는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의 어려움, 문제 해결방식, 멤버케어에 대한 필요를 발견하고,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슬람권 선교사들을 위해 적합하고 상황화된 방식의 멤버케어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질적 연구의 특성상 소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이슬람권 선교사 전체의 일반화된 경험으로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나온 자료들이 이슬람권 선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파송단체와 교회들이 이슬람권 선교사들의 필요와 멤버케어에 대해 제안한 점에 귀를 기울여서 효과적인 멤버케어 정책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복음의 최전방과 후방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힘찬 전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문상철, 『한국 선교운동의 지속가능성과 재활성화 연구』. 서울: 한국선교연구원, 2016.

문상철, 박찬의, 신경섭, 유희주, 조난숙, 『한국 선교사 멤버케어 개선 방안』. 서울: 한국선교

- 연구원, 2015.
- 유희주, “영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선교사 집단 심리 디브리핑 프로그램 개발: 기독교적 이야기 치료 관점에서”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차마스, 박현선, 이상균, 이채원 공역. 『근거이론의 구성』. 서울: 학지사, 2013. Chamaz, Kathy.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박현선, 이상균, 이채원 공역. 『근거이론의 구성』. 서울: 학지사, 2013.
- 코빈, 스트라우스. 김미령 외 7인 공역. 『근거이론』. 서울: 현문사, 2015. Corbin, Julidt and Strauss, Andseim.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김미령 외7인 공역. 『근거이론』. 서울: 현문사, 2015.
- 켈리 오도넬 엮음. 최형근의 공역, 『선교사 멤버케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49.
Kelly O' Donnell, ed., Doing Member Care Well. (Pasadena, CA: Willam Carey Library, 2002)
- Moon, Steve Sang-Cheol. Mission from Korea 2013: Microtrends and finance, April 2913”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Vol. 37, No.2
- _____. “Mission from Korea 2018: Mission Educat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Vol. 42, No.2
- _____. Mission from Korea 2019: Support raising, 2019 April”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Vol. 43, No.2

■ Abstract

Member care for Korean missionaries in the Islamic bloc

Hee Joo Yoo

This study is a qualitative approach to identify the practical difficulties faced by Korean missionaries in the Islamic areas and suggest effective ways to care them on the part of mission agencies and sending churches. The total number of research participants (interviewees) is 14 people who are either field missionaries who have served in the Islamic areas over 10 years or member care staffers in mission agencies and churche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nterview data are as follows. First, missionaries who worked in an Islamic area on a long-term basis tend to have spiritual, psychological, physical burnout symptoms increasingly over time due to the chronic stress mainly caused by spiritual oppression, worries about expulsion, and tensions related to security issues, which indicate the need for a holistic approach to member care. Second, many problems in the field can only be resolved with the help of nationals and fellow missionaries, thus preparing missionaries with proper knowledge about the Islamic culture and skills for intercultural relationship building is necessary in the pre-field training programs. Third, many missionaries requested mission agencies to establish systems for periodical caring service on a preventive measure. Fourth, many missionaries want time for rest and restoration that also facilitates talking relaxedly with people who understand them well. Fifth, mission agencies need to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missionaries and the sending churches so that the churches understand the hard realities of the mission field and not to expect fruits of ministry too soon. The research findings above mentioned highlighted the locus of real needs for member care that need to be reflected in the policies of member care in mission agencies and sending churches specially focusing on those missionaries working in the Islamic world.

Key words: member care in the Islamic bloc, member care policy, system of member care